

제 86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8.10.1)

자민당 총재선과 일본정치의 전망

하코다 테츠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자민당내에서 경제에 대한 성향에 따라 세 가지 파로 나뉜다. 먼저, 재정출동에 의한 경기대책을 주장하고, 재정재건은 미루어야 한다는 “재정출동파(아소)”, 재정건전화를 위한 증세를 주장하고, 단기적인 재정출동은 이해하는 “재정재건파(요사노)”, 구조개혁의 속행과 세출컷을오 재정건전화를 노리는 “아게시오(밀물)파(코이케, 이시하라)”가 있다.

한편, 총선거 후의 예상 시나리오는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자민.공명당 합쳐서 과반수 (241 의석)를 차지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을 양분하는 작금의 상태가 유지된다. 10 의석 이상의 차가 생기면, 민주당 오자와대표의 책임론이 분출된다. 당내에서 이반자가 나옴으로써, 이반한 그룹을 중심으로 중연립, 소연립 등, 중참 네지레(양분)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빈발한다. 그리하여 신당이 설립될 수도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자민.민주당의 의석수가 비슷해진다. (10 의석 이내로) 40 일 이내에 열리는 총리지명의 특별국회를 향하여, “40 일 전쟁”이 발발한다. 양당이 다수파를 만들려고, 서로 와해공작이 격화된다. 재편이 가속되어, 신당설립으로 이어진다.

세번째는, 민주당이 과반수로 중의원 여야당 역전이 되어, 정권이 교체된다. 민주당이 국민신당, 사민당, 공산당 등과 연립이나 정치협력을 모색한다. (민주당 이외의 당수가 총리가 될 가능성) 자민당 와해가 시작된다. 자민당 의원의 일부가 민주당으로 가거나, 신당설립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리하여 신당설립으로 이어진다.

<Q&A>

Q 선거 등에 관련된 일본 정치를 결정짓는 것은?

A.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제”이다.

Q. 오자와씨는 예전에는 전국곳곳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참의원 선거 이후, 오자와씨의 행동범위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그의 건강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총선거 전이 되면 분명히 지방 곳곳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본다.

Q. 아소 내각의 면면 혹은 일본 국회를 보면 2 세, 3 세 등의 대를 잇는 관료나 의원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A. 물론 ‘권력의 사물화’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경우는 강력한 후원회를 통하여, 대를 잇는 의원이 많이 나온다. 거꾸로, 한국은 왜 그렇지 않은가 궁금하기도 하다.

Q. 민주당의 경제전략은 무엇인가?

A. 민주당의 경제전략은 아메바와도 같아서 실체가 잘 안 잡힌다. 대략적으로 본다면, 큰 정부는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큰 정부를 추구하며, 사회보장과 정부보조금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Q. 아소씨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외교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소의 외교전략은 어떠한가?

A. 아소씨는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복고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며, 주로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이다.

Q. 하시모토 오사카 지사의 인기 원인은?

A. 코이즈미와 비슷하게, 쉬운 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끈다. 오사카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 영웅처럼 등장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